

# “당권, 호남표에 달렸다” 뜨거운 텃밭 구애

### ■ 새정치 전대 후보들 18~20일 ‘호남 대회전’ 총력

### “당권·대권 분리·계파 청산” 첫 TV토론부터 난타전

### 박지원 ‘호남 사수’ 문재인·이인영 ‘쟁탈 전략’ 맞붙

“호남 지지를 얻어야 당 대표 자격있다.”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의 분수령이 될 이른바 ‘호남 대회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당권후보들과 최고위원 후보들의 호남 구애가 뜨겁다.

텃밭인 호남을 잡아야 판세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각 후보들은 호남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며 ‘열인’하고 형국이다.

◇광주·전남 첫 TV토론회서 난타전=문재인·이인영·박지원 등 당 대표 후보 3명은 15일 열린 광주 MBC 첫 TV토론회에서 당권·대권 분리론, 계파주의, 지역주의 등 서로의 약점을 집중 공략하면서 난타전을 벌였다.

초반 TV토론에서 기선을 잡아야 전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후보들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문 후보는 “당을 살리는 일에 정치생명을 걸겠다”면서 “당 대표가 되려면 광주·전남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광주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적통의 되기 어렵다”고 호남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지역의 벽을 넘어서는 것보다 세대교체를 통해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길이 더 시급하다”면서 “당은 오직 혁신만이 살 길인데, 정당은 세대교체”라며 세대교체를 시종일관 주장했다.

박 후보는 “집권을 위해서는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신숙한 결정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호남의 정신을 지키고 당의 통합을 이뤄내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 후보는 “대권 후보

가 당권까지 도전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며 “문 후보는 대권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며 당권·대권 분리를 거듭 주장하며 문 후보를 공격했다.

이에 맞서 문 후보는 “박 대표의 경력은 당대 최고다. 하지만, 그동안 보여주신 리더십과 스타일을 보면 당을 장악해서 전횡할 것 같다”면서 “제왕적 대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당원이 많다”고 박 후보에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진노-비노’간의 갈등을 넘기 위해서는 세대교체만이 정답”이라며

문 후보를 공격했고, “박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지역적으로 고립된다는 걱정이 많다”면서 박 후보를 견제했다.

◇주말·주초 호남 대회전 주목=이번 전당대회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호남 합동연설회가 오는 18일(광주·전남)과 20일(전북) 펼쳐진다. 텃밭을 잡아야 판세를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 대표들과 최고위원 후보들은 호남 합동연설회에 사활을 걸고 있다. 휴일인 18일 오후 1시30분에는 화순 하니움스포츠펠에서 전남도당 대의원 대회, 오후 4시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시당 대의원 대회가 예정돼 있다.

이후 19일 전북TV토론회에 이어 20일 오후 2시에는 전주 오벨리스 웨딩홀에서 전북도당 대의원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후보들은 전대 중반에 이르

는 이번 주말과 내주 초 열리는 지역 대의원 대회의 호남 합동연설회가 이번 2·8 전당대회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호남공략을 위한 전략을 짜는데 올인하고 있다.

호남 지역에서 확실한 눈도장을 찍는 후보가 남은 기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에 목표는 지역구로 두고 있고 호남 지역 좌장적인 박지원 후보의 ‘사수전략’과 문재인, 이인영 후보의 ‘쟁탈 전략’이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대 후보들이 호남 민심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의원·관리당원이 절반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데다 수도권에서 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 중에도 호남 출신이 많기 때문에 ‘호남 민심’의 향방이 이번 전당대회의 승패를 가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의 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인영(왼쪽부터), 박지원, 문재인 당대표 후보들이 15일 오후 광주 남구 월산동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첫 TV토론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평가라운지

### 이운석, ‘농산물 주산지 지원법’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운석 의원은 지자체가 지정한 농산물의 주산지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을 의무화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산지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의 주산지 지원을 의무로 규정하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주산지 지원에 사용토록 하며, 주산지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농산물의 주산지 지정’은 무·배추·

마늘·양파 등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농식품부장관이 지정 대상 품목과 기준을 고시하면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주산지 농가들에게 생산 자금 및 기술 지원과 함께 정부의 수급 조절에 동참하도록 하면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김승남 “농식품부 업무보고 FTA 실질대책 없어”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지난 13일 실시된 농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 지난해 한·중 등 5개국과 FTA 체결, 쌀 관세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이 희생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보전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값싼 외국 농산물의 유입으로 인해 생산기반이 붕괴하고 있는 실정에서, 1차원 산업구조의 6차원 산업구조로 전환으로 농산물가공센터(30개), 6차산업융합센터 지원센터 등을 만든다고 해서 경쟁력이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며 “오려려 외국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우수한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반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김 의원은 또 “ICT기반 첨단화를 통한 스마트 팜 조성은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해 비닐하우스 개폐시설, 온도센서, CCTV등을 조작하는 형태로 대기압과 대규모 농장에 맞는 정밀농업은 대농위주로 구조개편하려는 점에서 불과하다”며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다면 생산성 증대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도 없어, 결국 대농위주의 사업개편으로 진행되는 명분을 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영록, 아동학대 어린이집 영구 퇴출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15일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어린이집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하는 한편, 어린이집 양도·양수 시 종전의 어린이집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을 승계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영유아에게 상해를 입히면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 재취득 기회도 박탈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아동을 학대한 교사나 원장 등이 자격을 박탈당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격 재교부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이 가능해 아동 학대 재발 우려가 크다”며 “아동학대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 野 “개헌 서둘러야” vs 與 “지금은 안돼”

### 양당 지도부 ‘2+2 회동’ 개헌특위 놓고 날선 공방

### 선거구 확정 등 논의 정계특위는 2월중 구성 합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우윤근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정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른바 ‘2+2’ 회동을 했지만 양당이 요구한 개헌특위 구성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새정치연합 측은 권력구조 개편 등을 위해 개헌특위 구성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새누리당 측은 개

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양당 지도부는 초반 인사말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서 주로 개헌 추진 여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소 지친 표정으로 “힘든 얘기”를 많이 했다”

며 “야당이 개헌특위 구성을 굉장히 강력하게 한 시간 이상 요구했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도 이날 회동에 대해 “(개헌 논의 불가라는) ‘대통령 가이드라인’에서 (여당이)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한 시간 넘게 그 문제로 했는데 (필요성에) 공감한다” 이게 진전”이라고 말했다.

개헌을 둘러싼 여야 지도부의 입씨름은 이날 회동 전부터 충분히 감지됐다.

김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장래를 볼 때 개헌의 필요성은 다 공감하지만, 경제살리기 때를 놓치게 되면 우리

국민, 미래 세대에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며 당장 개헌을 추진하는 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야당 지도부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를 개헌의 적기로 판단,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련의 ‘국정농단’ 의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반드시 개헌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2+2’회동에서는 선거구 확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를 2월 임시국회 중으로 구성하고, 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김성현 전 민주시당 사무처장

### 광주 서을 보궐선거 출마 선언

김성현 전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처장이 15일 4·29 광주 서구를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사무처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위원장의 정당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출마를 선언한다”며 “당원이 주인이 되고 소통하는 지역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전 사무처장은 “광주 서구를이 전

직장관, 국회의원, 검찰관 등 지역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정치 철새들의 낙원이 되고 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공원 명품공원 조성, 유·청소년 축구대회 개최, 서창동 제2의 민속촌 건립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출업 (광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고, 한국도로공사 다년재직)

초혼	추천 회원	재혼
<b>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b> 27-45세 <b>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b> 28-47세 <b>공무원(5급-9급)</b> 27-42세 <b>사법, 행정고시 합격자</b> VIP <b>삼성, 현대, LG 직원</b> 28-47세 <b>은행원, 연구원</b> 29-49세 <b>대(중,소)기업 직원</b> 27-48세 <b>사업가, 자영업</b> 29-39세 <b>세무사, 연구원</b> 29-48세 <b>국영기업체 직원</b> 29-39세 <b>교사, 교수</b> 28-49세	<b>전문직 희망 여성</b> 25-38세 <b>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b> 26-41세 <b>간호사, 유치원 교사</b> 27-42세 <b>의사, 약사, 교사</b> 25-39세 <b>변호사, 회계사, 변호사</b> 26-39세 <b>공무원(5급-9급)</b> 27-42세 <b>정부투자기관 직원</b> 25-38세 <b>간호사, 은행원</b> 26-47세 <b>학원(음악)원장, 강사</b> 27-42세 <b>스튜어디스, 영양사</b> 26-42세 <b>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b> 27-36세	<b>의사, 변호사</b> 32-65세 <b>국영기업체 기관장</b> 52-66세 <b>공무원, 교사, 교수</b> 35-65세 <b>대기업 간부</b> 36-59세 <b>회사원, 자영업</b> 33-67세 <b>'무출산 여성' 희망</b> 31-58세 <b>VIP 희망 여성</b> 29-53세 <b>학원(음악)원장, 강사</b> 27-63세 <b>공무원, 교사</b> 32-58세 <b>간호사, 회사원</b> 29-48세 <b>자영업, 가사</b> 35-64세 <b>'무자녀 남성' 희망</b>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441호 B1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 2015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편입생 모집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인문	신학과	4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4	
사범	유아교육과	3	1
예능	음악학과	6	2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1.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5. 1. 26(월) ~ 2. 2(월)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② 전형일 : 2015. 2. 4(수) 오전 10:00

1.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1. 지원자격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 (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00명(주·야)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00명(주·야)	4학기 이상 수료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입학문의 ▶ 대학원 062) 805-1115 학부 062)805-1114